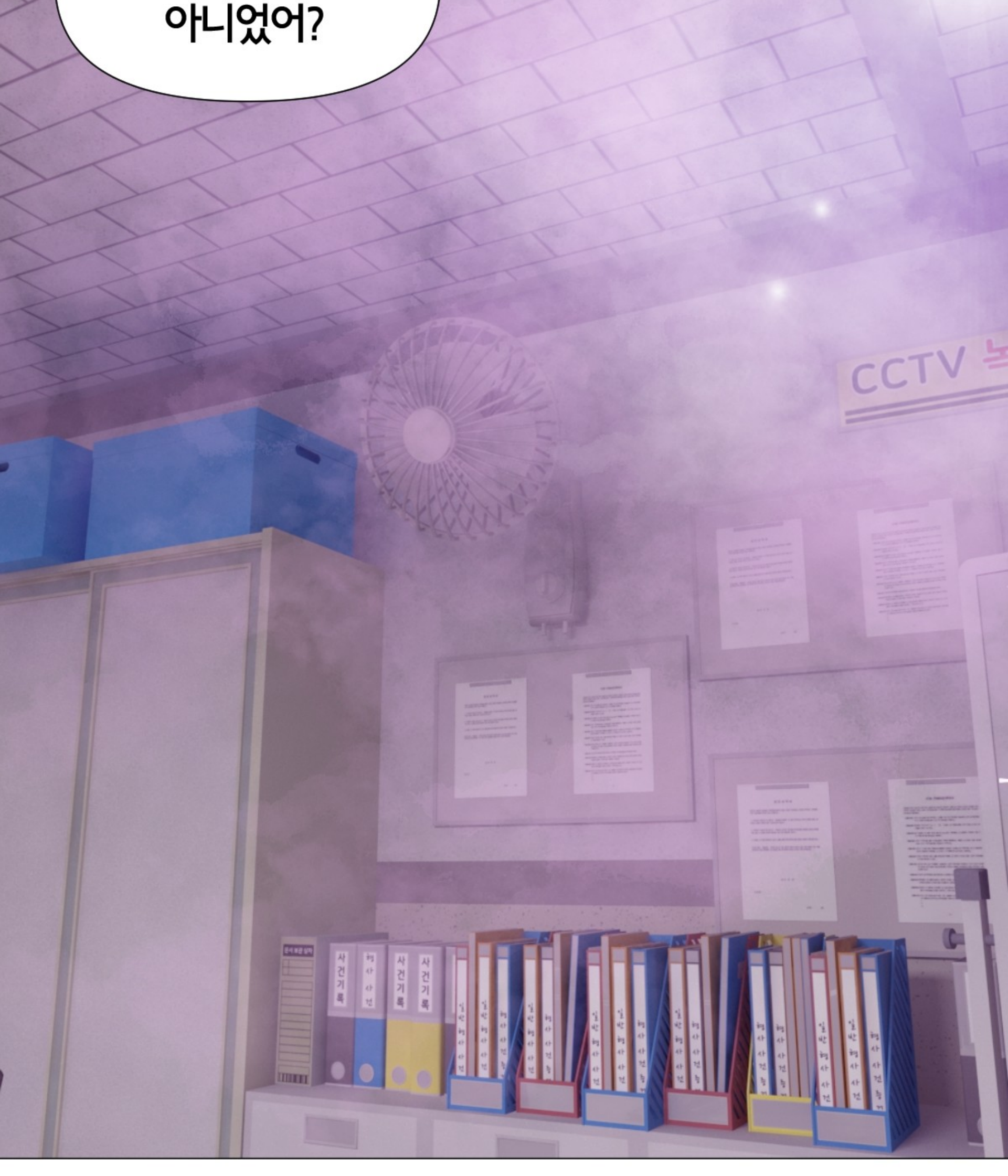


방금 출근한 거
아니었어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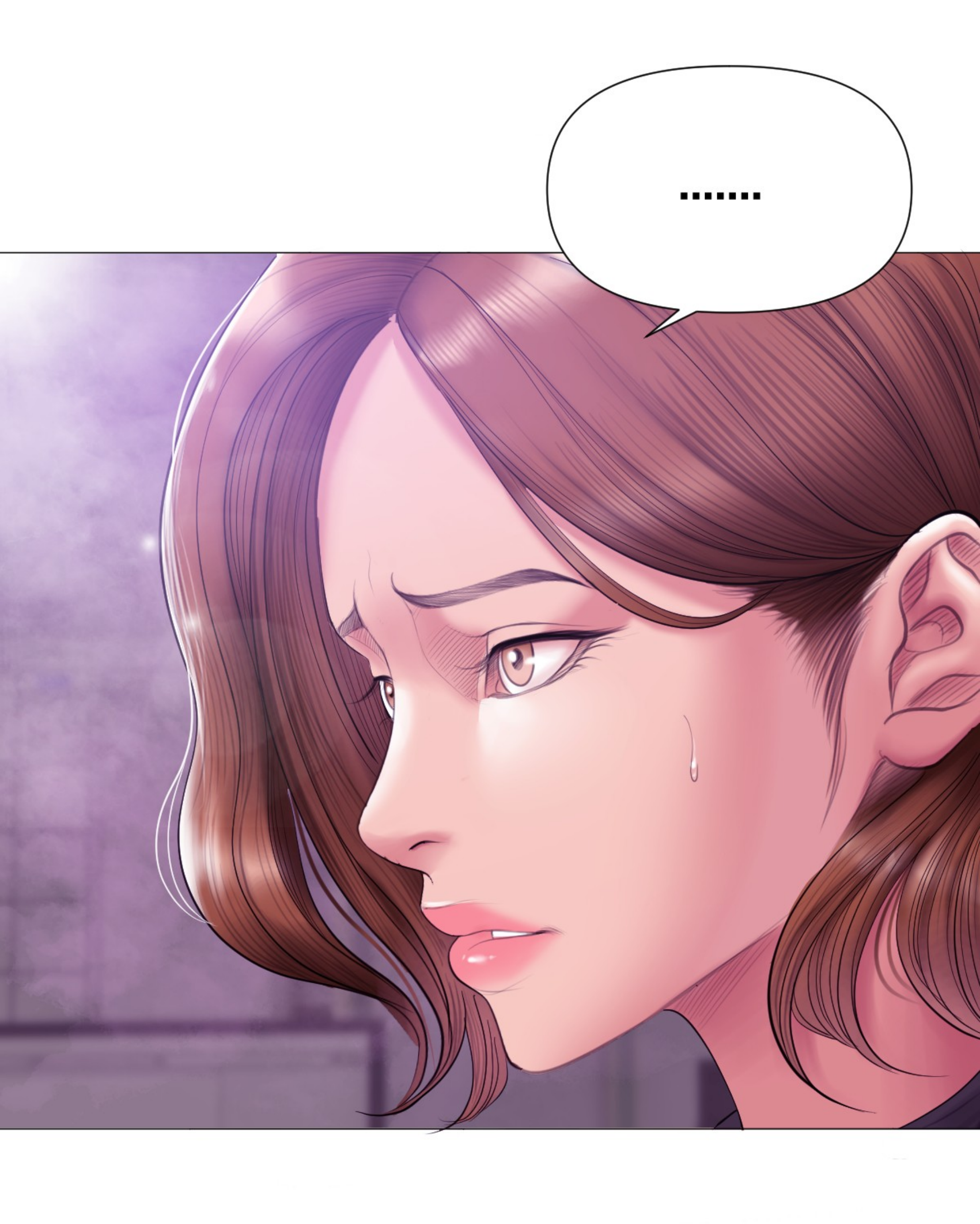


복귀했으면
보고부터 해야지.



인사도 없이
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?

.....



두고 온 게 있어서
잠깐 주차장에...



푼!
거짓말이 서투르네.



희한하군.



보통은 경찰서에
들어오자마자 증상이
나타나는데,

여전히 눈빛이
살아 있네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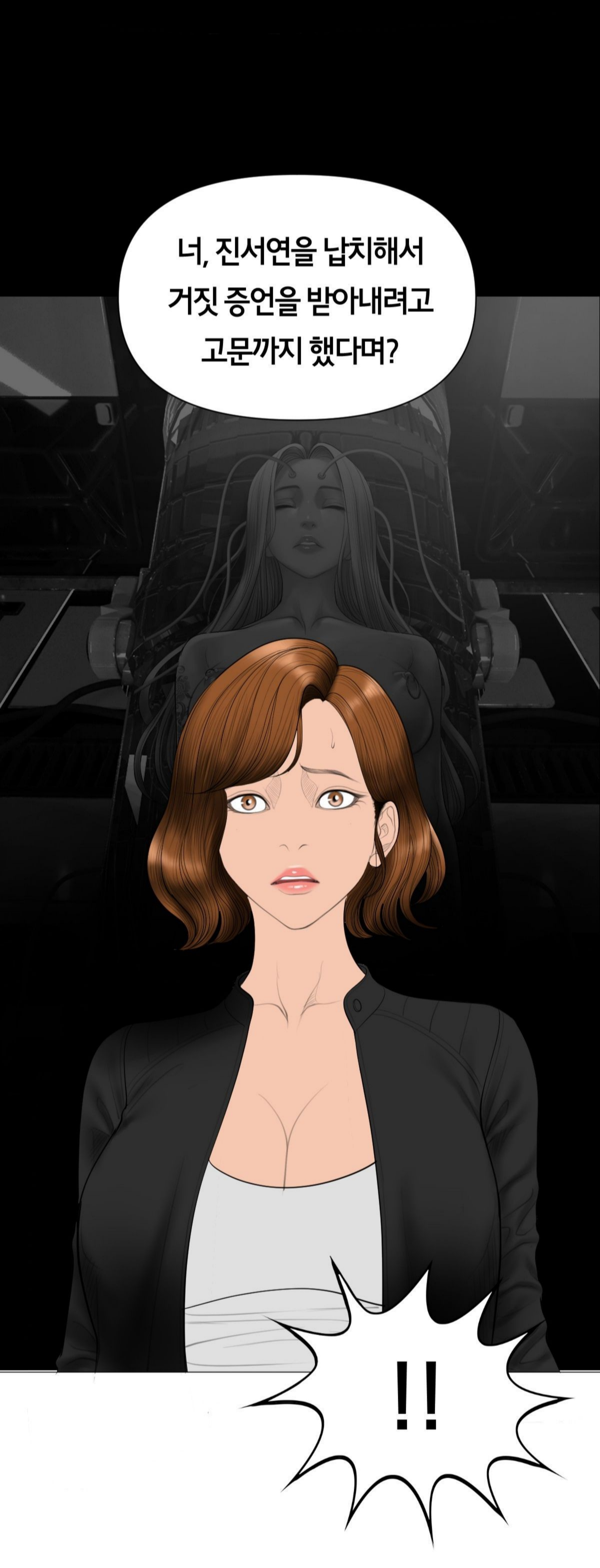
그만 가봐도
되겠습니까?

아니.



중대범죄 피의자를

그렇게 순순히
보내줄 순 없지.



진서연의 증언이 뒤집힌 이상,
김용과 유현정을 구금할
명분이 사라졌어.



서, 설마...



그놈들을
풀어준 겁니까...?!



.....



이지민 경위.